

Canada Non Tariff Barriers Issue

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캐나다 식품검역청, 식품안전 규제 발표



캐나다식품검역청, 식품안전 규제 최종본 발표

캐나다식품검역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은 지난 6월 13일 식품안전규제(Safe Food for Canadian Regulations, SFCR) 최종본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규제는 2019년 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는 식품안전에 대한 새로운 위험, 소비자들의 기호 변화 그리고 예방중심의 국제표준을 고려한 것으로, CFIA는 앞으로 식품 안전 예방 및 불안전 식품 시장 퇴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번 규정은 식품 수출입 기업들이 주요 적용 대상이지만, 라벨링, 광고 등에 대한 일부 규제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임. SFCR이 발효되면, 미국 식품의약국의 규제를 받는 식품 수출업체들의 경우 SFCR 허가증을 통해 자사의 식품안전이 미국 수입요건에 부합함을 입증할 수 있음

수출입 관계자 대상 새로운 인허가 제도 및 수출입 전후 추적 규정

CFIA는 식품 제조, 처리, 포장 관련 기업 혹은 개인에 대한 새로운 인허가(licensing) 제도를 도입하고, 식품 혹은 식품성분에 대한 생산 및 구매 추적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내 불안전 식품 퇴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또한 이번 식품안전규제는 기업의 예방적 관리 책임을 강조하며 “인허가증을 소지한 식품업체 기업 혹은 개인은 생물, 화학, 물리적 위험, 중점관리기준, 시정조치 절차 등을 포함한 예방적 관리 계획안(Preventive Control Plan, PCP)을 서면으로 준비·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함

Canada Non Tariff Barriers Issue

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포장에 따른 소비자 오도 규제 및 향료성분 라벨링 문구 추가

본 규제에 따르면, 포장은 식품 사용 목적에 부합하고 처리, 저장, 운반 시 식품이 오염 혹은 손상되지 않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함. 또한, 포장상으로 식품의 품질 혹은 구성을 부풀려서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 상표, 색상 등의 사용이 금지되며, 소비자용 포장식품에 추가된 향료 성분이 천연소재가 아니거나 혹은 해당 성분을 천연소재향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림표현이 라벨링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식품에 첨가된 향료성분이 인공성분임을 기재해야 함

캐나다 수출입 업체들의 책임 강조, 해외 업체들에 대한 요건 까다로워질 수도...

캐나다식품검역청은 이번 식품안전규제 최종본을 확정 지으며 국내외 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에 대한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해당 규제는 새로운 인허가 시스템 도입 및 예방적 관리 규제를 포함하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수출입 업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캐나다로의 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경우, 캐나다 현지 수입업체가 적법한 인허가증 소지 기업인지 확인해야 함. 또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캐나다 기업들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수입 전 해외 업체들의 식품위생,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까다로워질 수 있음

▶▶ 캐나다식품검역청, 식품안전규정(Safe Food for Canadians Regulations)

<http://www.gazette.gc.ca/rp-pr/p2/2018/2018-06-13/html/sor-dors108-eng.html>

▶▶ 식품안전규정 관련 기사

<http://www.foodincanada.com/food-in-canada/final-safe-food-for-canadians-regulations-are-published-cfia-139800/>

출처

Safe Food for Canadians Regulations,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2018.05.30